

KIA, 올해 빅리거 편 아담 올러 영입

150km 넘나드는 다양한 구종...탈삼진 능력 탁월 에이스 네일과 '원투펀치' 구축막강 선발진 기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에이스' 네일

과 함께 팀 선발 미운드를 이끌어 줄 '원투펀치' 외국인 투수를 영입했다.

KIA는 16일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Adam Oller, 우투우타, 1994년생)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주 컨로우 출신인 아담 올러는 우완 투수로 신장 193cm, 체중 102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마이너리그(이하 트리플A)에서 4시즌 동안 활동했다.

2016년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에 지명됐지만, 2022년 오슬랜드 애슬레틱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36경기(선발 23경기)에 출장해 5승 13패 1홀드 평균자책점 6.54를 기록

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57경기(선발 45경기)에 나서 21승 9패 2홀드 평균자책점 5.01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8경기에 선발로 출장해 2승 4패 평균자책점 5.31을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18경기(선발 9경기)에 나서 4승 1패 2홀드 평균자책점 5.30을 기록했다.

올러의 가장 큰 강점은 위력적인 빠른 볼과 타자를 현혹하는 다양한 변화구다.

MLB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스번트에 따르면,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포심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볼,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5가지 구종을 던지며 탈삼진 능력을 과시한다.

KIA 구단은 올러가 '에이스' 네일과 함께 팀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주고, 막강한 투수력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A 관계자는 "아담 올러는 제임스 네일과 함께 선발 투수로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



KIA 타이거즈새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가 계약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며 영입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출전 경기 모두를 선발로 등판한 만큼 선발 경험도 많은 선수"라며 "내년 시즌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며 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시카고 컵스 출신 내야수 패트릭 위즈덤 영입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위즈덤까지 최종 계약을 끝마치면 내년 시즌 V13을 위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끝마치게 된다. /주홍철 기자



16일 열린 '2024 체육지도자 워크숍'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체육지도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땀흘리는 현장에 답있다 지도자가 체육을 바꾼다

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 성료

광주시체육회가 16일 광주시체육회 관 중회의실에서 전문체육지도자 29명을 대상으로 "2024 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시체육회가 주최 주관하고 광주시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사전에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부상 방지 및 재활에 필요한 스포츠 테이핑 실습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러 지도자 간 전문체육의 방향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고 최근 스포츠과학의 경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의 일선 현장에서 전문체육 선수를 지도하며 광주체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체육회에서도 스포츠 현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도자는 선수의 길잡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올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스타' 손흥민, 8년 연속 NO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8년 연속 '올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스타'로 선정됐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월 22~25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천711명에게 올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 선수를 자유 응답으로 두 명까지 뽑아달라고 물은 결과 손흥민이 70.7%의 압도적 지지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은 2021~2022시즌 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2016~2017시즌부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월드컵 클래스 공격수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13년 8위로 순위권에 처음 등장한 손흥민은 2017년부터 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스포츠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는 이강인(12.7%)이 2위에 오른 가운데 올해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빠약이' 신유빈(대한항공)이 10.4%의 지지를 받아 3위에 랭크됐다.

또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8.2%), 남자 펜싱 오상욱(대전광역시청·8.0%), 축구 김민재(원앤·6.9%), 사격 김예지(5.3%), 양궁 김우진(청주시청·5.2%), 축구 황희찬(울버햄프턴·2.9%), 여자배구 김연경(흥국생명·2.5%)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야구 선수가 톱10에 한 명도 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캡틴 존재감'...사우샘프턴전 전반 45분 뛰고도 '1골 2도움'



토트넘의 손흥민이 16일 열린 EPL 16라운드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전반 12분 팀의 두번째 골이자 자신의 시즌 6호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손흥민, 토트넘 역대 최다 도움 '68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32)이 '꿀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1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며 2경기 연속골과 함께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의 주인공이 됐다.

토트넘은 16일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 2024~2025 EPL 16라운드에서 5-0으로 승리했다.

캡틴 손흥민은 전반전만 뛰면서 1골 2도움을 기록, 2경기 연속골을 작성하며 시즌 6호골(정규리그 5골+유로파리그 1골)을 맞췄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도움 2개를 추가, 토트넘 입단 이후 EPL 무대에서 6

8개의 도움을 쌓으며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선수' 1위로 올라섰다.

토트넘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가장 많은 도움을 올린 선수는 1992~2004년 활약한 대런 앤더턴(67개)이었고, 손흥민이 이날 2개의 도움을 쌓으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토트넘은 전반전 킥오프 3초 만에 제임스 매디슨의 선제 결승골이 터지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손흥민은 전반 12분 오른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자 페널티지역 정면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골 맛을 본 손흥민은 도우미로 변신했다.

손흥민이 전반 14분 왼쪽 측면에서 투입한 크로스가 도미니 솔란케의 몸에 맞고 나오자 굴절된 볼을 데안 콜루세브스키가 마무리하며 3-0으로 앞서갔다.

토트넘은 전반 25분 팀의 네 번째 득점이 터져 나왔고, 손흥민이 어시스트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내준 패스를 파페 사르가 잡아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전반 추가 시간 매디슨이 또다시 손흥민의 결정적 패스를 잡아 자신의 멀티골과 함께 이날 경기의 다섯 번째 골을 책임졌다. /연합뉴스

역대 최초 월드시리즈 끝내기 만루홈런 공, 22억원에 낙찰

2024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 S)에서 프레디 프리먼(LA 다저스)이 쏘아 올린 끝내기 만루홈런 공이 역대 세 번째 비싼 야구공이 됐다.

AFP통신은 16일 프리먼의 월드시리즈 만루홈런 공이 SPC 옥션 경매 결

과 156만달러(약 22억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프리먼은 뉴욕 양키스와의 올해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다저스가 2-3으로 뒤진 10회말 2사 만루에서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터뜨려 극적인 6-3

승리를 이끌었다.

월드시리즈 역사상 끝내기 만루홈런은 프리먼이 처음 터뜨렸다.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프리먼의 만루홈런 공보다 비싸게 팔린 공은 두 개 뿐이다. /연합뉴스

올 시즌 최초로 50홈런-50도루를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다저스)의 50번째 홈런공이 지난 10월 경매에서 48만2천달러(7억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앞서 마크 맥카이어의 시즌 70번째 홈런공이 1999년 경매에서 300만달러에 낙찰돼 종전 최고액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백하나(왼쪽부터)-이소희가 지난 15일 열린 HSBC BWF 월드 투어 파이널스 2024 여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뒤 메달과 트로피를 수여받고 있다. /AP-연합뉴스

'황금 콤비' 이소희-백하나 셔틀콕 왕중왕戰 女複 우승

"가장 큰 대회 우승 기쁨"

올 시즌 왕중왕전 격인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자 복식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세마을금고) 조가 파리 올림픽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

이소희와 백 하나는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세계랭킹 2위 이소희-백 하나는 전날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4위인 마쓰야마 나미-시마다 치하루 조(일본)를 2-0(21-19 21-4)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BWF 월드 투어 파이널은 배드민턴

국제대회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대회로, 각 세부 종목 상위 8명(팀)만 출전해 최강자를 가린다.

지난해 준우승했던 이소희-백 하나는 처음으로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백 하나는 "2024년 마지막 경기이자 가장 큰 대회에서 우승할 줄 몰랐는데, 우승하게 돼서 제일 기쁘다"고 말했다.

이소희도 "파이널 대회 자체가 아무나 출전할 수 없는 대회고, 한 해를 통틀어 뛰어난 선수들만 초청받아 필수 있는 대회인데(참가한 것조차) 영광"이라며 "올해 막판 부진하다가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서 우리에겐 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연합뉴스

2025 KBO 신인 지명 선수, 도핑 검사 전원 음성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5 KBO 신인 지명 선수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KBO 사무국은 신인 선수 1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도핑 방지 교육과 검사를 실시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상 선수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를 KBO 사무국에 통보했다.

KBO 사무국은 "프로야구에 첫발을 내딛는 신인 선수를 포함해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로부터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핑 방지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